

# 성품은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다

만약 불도(佛道)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 라고 한다면, 이는 전혀 옳은 견해가 아니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5)



범이사 주지

부처님의 도는 닦거나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얻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여 이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머리가 자기가 본래부터 머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이지, 이 마음을 떠나 달리 신통한 무언가가 없다. 하지만 이 마음을 한 번 확철하게 확인해야, 비로소 전도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냥 다 마음이 하는 일일뿐이라고 치부하고 만다면, 그것은 단지 알음알이의 구름만 짙게 만들어 전도망상만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일천 부처가 오셔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본심과 계합하고 무명 칠통이 터져나가야, 비로소 안심입명처가 드러난다.

혹은 한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부라리기도 하여, 어찌다 서로 통하더라도 하면 곧 '계합하여 알았다'거나 '선리를 증득하였다.'고 말한다. 홀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혹 남을 만나 어떤 도리라도 알게 되면 심중으로 기뻐하기도 한다. 만일 상대에게 설복 당하여 그보다 못함을 알게 되면 속으로 슬프고 섭섭해 하니, 이러한 마음자세로 선을 닦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기 본분사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문답의 결모양을 배우고 의리선(義理禪)을 익혀서, 집짓 눈뜬 분들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마 황백스님 당시에도 그런 뜨내기들이 있었던가 보다. 부처님 웃을 걸치고 부처님 말씀에 팔아먹는 가짜는 어느 시대에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불법을 배우는 생사일대사가 그런 흉내나 내는데 있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차라리 견해지를 다 던져버리고 언제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부인의 바른 자세다. 고봉화상은 선의 삼요(三要)에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꼭 필요하다 하였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고, 분심을 내어 재도 전하는 것이 엉거주춤히 알음알이에 기대어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더 요긴하고 바람직한 길이다.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한 생각 돌이킬 수 있는 공부인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다.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선도(禪道)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달마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 · 박구원

여금 견처(見處)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공부는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견해만 없으면 사방팔방이 텅 비어서,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진다. 그 어떠한 대단한 도리라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은 즉시 어두워진다. 그 자리에는 한 법도 세울 수가 없다. 방거사도 '있는 것도 없이 해야 하는데, 어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라.' 하였다. 달마대사께서 면벽하신 것도 이 마음이 외도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보인 것이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이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처럼 딱 멈춰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밖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면 견처를 가지게 된다. 견처는 상(相)이 되어 마음을 생각으로 가두는 무명 칠통이 되는 것이다. 그 칠통을 타파하기 위해 시실한 것이 조사 관이다. 역대 조사스님네의 말씀은 단칼에 무명을 끊어주는 반야검이다. 그 일구(一鉤)에 의심이 사무치면, 분별망상이 오도 가도 못하고 녹아내리는 것이다. 오직 무명 칠통을 타파해야만 본지공공이 드러난다. 악몽은 잠에서 깨어나야 해결되지, 꿈속에서 아무리 꿈 깨는 법을 토론하고 이해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헤아림을 있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나, 분별 망상은 마구니의 경계다.'고 하였다.

본래 청정한 보리자성은 누구나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불법은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다만 자기 눈을 스스로 가리지만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 하지만 한 생각을 일으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천지현격으로 벌어지고 만다. 그래서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라고 그처럼 간곡히 당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합된 사람은 작용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작용해도 작용한 바가 없게 된다. 달마스님이 얘기한 단식이라는 것도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먹어도 먹은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먹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망상을 피우므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게 먹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평등법을 모르고 좋으면 좋은 데 집착하고 싫으면 싫은 것을 버리려 하다 보니, 그만 마구니 경계에 사로잡혀 허망해지고 만다. 승찬스님은 도는 어려운 것이 없어서 다만 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 것만 그만 두면, 자연히 통연 명백해진다고 하였다.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했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며, 깨졌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다.

성품은 늘 여여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 헤가 뜨고 지는 인연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성품도 업에 따라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할 뿐 그 업에 몰드는 바는 없다. 정진력을 갖춘 공부인도 선악의 인연에 따르되, 물드는 바가 없이 의연하게 살아간다. <끝>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 생명을 죽이는 도구를 갖고 있지 말라

(범망경)

### 해석의 한계

뭐, 남의 나라 일이지 않다. 하지만, 또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할 수 없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웃 나라 일본의 일 말이다.

지금 일본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헌법> 제9조의 개정이다. 그 반대편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그 수호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살던 고지(高知)에도 그런 반대편 인사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전자 안에서 "헌법 9조를 지키자"는 광고문을 본 적이 있다. 그 광고문 안에는 <헌법> 9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시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 유명한 9조를 읽어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기억을 할 수 없으니, 번역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독후감은 이렇다. 현재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자위대' 그 자체가 제9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법률해석학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정확한 문장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9조에서는 어떠한 무력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는 <보살계>의 제 48경계(輕戒) 중 10번째의 조항처럼 말이다. 물론 한 나라가 어떻게 아무런 무력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나로서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일본의 <헌법> 9조의 문면(文面)대로라면, 자위대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9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다만 해석만으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9조에서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헌법해석권을 갖고 있는 법제국 장관이 교체된 사연도 바로 그러했다. 물러난 장관이 바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 지금은 "해석역하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

### 계율은 형식이다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쓰이는 발전된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법률해석학이 있다. 율장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역시 해석학이 필요하다. 계율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해석의 자유를 높이 외쳐본다고 하더라도, 계율의 조문이 그 해석의 무한자유를 용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검토하는 이 보살계의 조항만 하더라도 그렇다.

모든 살생의 도구, 병기(兵器)류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한다. 이 계율에 따르는 한, 불교사에 등장하는 '승병(僧兵)'의 존재는 이 계율을 어긴 것이 된다. 승병의 존재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범계(犯戒)이자, 파계(破戒)로 밖에 볼 수 없게 한다.

여기서 독자들 중에는 손을 들고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서산 스님이나 사명대사처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잡고 일어났던 스님들의 행위로 다 파계라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계율은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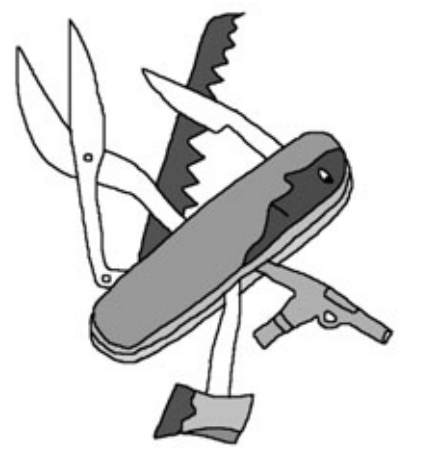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라는 점이다. 형식·겉으로 볼 때, 그분들의 행위 역시 파계임은 물론이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야 한다. 당시 임진왜란에는 일본의 스님들도 종군(從軍)했다. 직접 살생을 했는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역시 파계다.

그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파계를 한 것은, 일본의 스님이나 조선의 스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남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파계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파계한 것이다.

서산, 사명 스님은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계율마저 깨뜨리셨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해석이 계율도 살리고, 의승스님들도 살리는 해석이 아닐까. <끝>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모집중

◆개강일시 : 2013년 12월 중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 (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문의 010-4138-5523